

강좌제목: 옛이야기의 세계

담당교수: 최원오

강좌연도: 2012년도 1학기

강좌차시: 9주차

강의내용: 초등학교 교과서 속 설화읽기: <오늘이>

(최원오, 「오늘이」: ‘오늘이’가 아닌 ‘오늘이’ 서사의 허망함, 『월간 어린이와문학』, 2011.09)

강의목표

1. <오늘이>와 <원천강본풀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원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추출하고, 그것의 의미 및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할머니, 저는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네 부모님은 지금 원천강에 살고 계신단다.”

오늘이 뿔 듯이 기뻐서 다시 물었습니다.

“원천강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원천강을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단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 초등학교 국어 3-1 읽기 「오늘이」의 일부

1. 부모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 섬세한 차이의 독해

1958년에 출간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김종래 작가의 만화 <엄마 찾아 삼만리>, 1972년에 극장에서 상영된 정인엽 감독의 영화 <엄마 찾아 천리길>, 그리고 1976년에 MBC에서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원제는 ‘엄마 찾아 삼천리’母をたずねて三千里]>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뚜렷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한 아이의 ‘엄마 찾아 나서기’라는 공통된 서사가 그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감당해야 했던 1950년대의 정치적 현실,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가족 부양을 위해 도시로 떠난 가족의 일원을 애타게 기다려야 했던 1970년대의 경제적 현실은, 원치 않은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다. 그러한 이산가족들에게 이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적절한 감성코드를 갖고 있었다.

우리의 옛 설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주도 구전신화 중의 하나로 알려진 <원천강본풀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신화 또한 ‘오늘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부모를 찾아 원천강에 가는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천강본풀이>는 위에서 열거한 현대물이 갖고 있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바로 이 작품이 신화라는 데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관찰할 수 있는 경향, 즉 ‘태초의 때’, 신화적 시간, 위대한 시간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회복은 모든 의례, 모든 의미 있는 행위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미르치아 엘리아데, 1996:503)라는, 엘리아데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어

면 의례에서 불린 신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원천강본풀이>의 최초 채록본이 1930년대의 제주도 심방 박봉춘이 구연한 것이란 점, 또 박봉춘이 21대 제 남제주군 남원읍 예촌 마을에서 ‘당면심방’을 하다가 1957년에 사망했다는 점(진성기, 1993;168~169)을 근거하여 볼 때, 이 신화는 신화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원천강본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간과’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위에서 열거한 현대물과 <원천강본풀이>가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섬세한 차이를 파악하여 의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언급이 ‘이들 작품의 상호 비교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는 무조건적 당위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이러한 언급은 이들 작품의 문화적 생산 배경을 무시한 채 ‘부모 찾아 나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뭉뚱그려 이해하려는, 불특정 독자들의 독해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고, 또 전문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작품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육되어야 할 작품인가의 문제까지를 아울러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원제목에서 드러나고 있는 ‘원천강’의 실체부터 탐구해 보기로 한다.

2. 사서史書와 구전신화에 보이는 ‘원천강’: 인명人名의 서명화書名化/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오늘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이 작품의 원제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천강본풀이>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낯설게 와 닿는 단어가 바로 ‘원천강’이다. 왜 낯선가 하면, ‘본풀이’는 ‘신—원천강’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신이 아닐 수도 있다—의 내력에 대한 풀이’ 정도로 이해되는 단어로써, 그에 대해 이미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원천강’은 처음부터 명확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신화를 최초로 소개하고 있는 『朝鮮巫俗の研究』(上)에서도 “원천강은 여기에서는 신국神國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로 밖에 주석을 달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들어 ‘원천강’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짐으로써, 이 신화에 대한 작품적 이해의 깊이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원천강은 당나라 초기의 역사적 인물로 관상觀相을 아주 잘 보았다고 한다. 중국의 고대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그리고 전기소설집傳奇小說集인 『태평광기太平廣記』에서도 관상과 관련한 원천강의 명성을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고, 현재 중국 인터넷에서도 원천강을 관상술의 비조鼻祖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상술과 관련하여서는 원천강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문화적 환경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명성이 중국에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국에서 관상술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원천강이 어떻게 해서 한국의 구전신화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원천강에 대한 첫 기록은 놀랍게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확인된다. 태종 18년(1418), 액厄을 피하여 잠시 송도松都에 와 있던 태종太宗은 상왕 정종定宗의 병이 위독하다는 보고를 받는다. 이에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대언代言 등을 불러 임금이 환도還都하

여 상왕 정종을 문병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견이 엇갈리자, 태종은 다음과 같은 전지傳旨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그 전지 속에서 ‘원천강’의 이름이 확인된다.

“영의정 등이 말한 것은 만세에 바꾸지 못할 정론正論이고, 좌의정 등이 말한 것은 일시에 임금을 근심하는 지극한 뜻이다. 내가 음양陰陽의 금기[拘忌]에 대하여 비록 다 믿지는 않으나, 그러나 옛날에 원천강·이순풍李淳風·소강절邵康節 등이 음양으로써 길흉吉凶을 앞서 알았으며, 그들의 정한 바는 거짓이 아니었다. 이로써 본다면 마음대로 조치할 수도 없다. 궁가宮家를 합하여 환도하는 것을 나의 마음에는 평안치 않게 여기니, 우선 단기單騎로써 문안하고 돌아왔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환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음양의 이치로써 길흉을 판단하는 대표적 인물로 이순풍, 소강절과 함께 ‘원천강’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태종이 명과학命課學—음양학이라고도 함. 운명, 길흉, 화복 따위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학문.—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방증해 준다. 또한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 명과학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문이었음을 방증해 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다수의 ‘원천강’ 기사가 그 근거가 된다. 이외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도 원천강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숙종 16년(1690)에 남소문南小門의 개문開門에 따른 길흉의 여러 가지 설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원천강이 지은 문루경법문樓經法으로써 그 길흉을 논하는 내용이 보인다. 이처럼 원천강의 저술은 조선의 통치 체제 내에 공식적으로 수용되어 운명을 추리하거나 길흉을 판단하는 준거로 두루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조 21년, 고종 4년, 고종 11년의 기록에 보면 원천강이 ‘인명’이 아니라 ‘서명’으로 통용되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다만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원천강』이 어떤 성격의 책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천강오성삼명지남袁天綱五星三命指南』이 아닐까 한다. 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책 속에 “운명을 추리하는 방법”이 들어 있다고 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표제에 ‘袁天綱’이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원나라의 마단림馬端臨이 편찬한 『문헌통고文獻通考』(1273년에 시작하여 1322년에 완성)에는 총 14권으로 된 『오성삼명지남五星三命指南』이라는 책만 보이고, 편찬자는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찌서 마단림은 그 편자를 알 수 없다고 한 책이 조선에서는 ‘원천강’ 내지는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이라는 제명을 달고, 그것도 과거시험 교재의 하나로써 통용되었을까? 이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조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천강의 위상과 권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원천강’이 인명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인명뿐만 아니라 서명으로까지 인식되었다는 것은, 조선에서 원천강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구전신화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원천강’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 첫째, 오늘의 부모가 살고 있는 공간(赤松智城·秋葉 隆, 1991;292). 그런데 이 신화의 후반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천강은 사계四季가 공존하고 있는 곳(赤松智城·秋葉 隆, 1991;298)이라는 점에서 일상적 공간은 아니다. 사계가 공존하는 일상적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강은 일상적 공간이 아닌 신성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자면, 원천강은 자연 변화의 이치를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 파악된다. 춘하추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 따른 자연 변화의 양상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음양의 이치에 따른 자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원천강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둘째, 점서占書(赤松智城秋葉 隆, 1991;299). 오늘이가 부모를 만나고 돌아와, 그녀에게 그녀의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를 맨 처음으로 알려준 백씨부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대사大蛇에게서 얻은 두 개의 야광주 중 한 개를 선물한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말해 준 예언, 즉 ‘너도 그 야광주들과 연화를 가지면 신녀가 되리라’라는 예언에 따라 오늘이는 옥황의 신녀神女가 된다. 그 후 오늘이는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騰寫하는 일을 맡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원천강’은 점서를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점쟁이, 무당 등의 직업명칭(진성기, 1991;613). <원천강본풀이>의 이본 중 하나인 ‘조술생본’에서는 원천강이 여인으로 등장한다. 이 여인의 남편이 왕이 되고 싶었는데, 아내의 실수로 남편은 왕이 되지 못한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점서 ‘원천강’이나 보면서 남의 인생을 봐주는 일이나 하라는 저주를 퍼붓고 떠난다. 그로부터 이 여인의 이름을 ‘원천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점서에서 점서를 보는 사람’으로의 호칭 변화는 사서에서 파악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서 지극히 흥미로운 양상이다. 그러나 과거시험 공부를 위해 책으로서의 ‘원천강’에 주목해야 했던 예비 관리 계층의 상황과 운명을 실제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던 민간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변화의 방향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구전신화에서의 ‘원천강’은 사서에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원천강이 완전하게 소거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점쟁이, 무당 등의 직업 명칭으로 호칭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고유명사가 일반명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전신화에서의 원천강이 역사적 인물로서의 원천강이 보여준, 그리고 그의 저서에서 빛나게 발산되는 ‘아우라’만 취한 결과 ‘거의 새롭게’ 형성된 단어임을 말해 준다. 즉 공간이 되었건, 책이 되었건, 직업이 되었건 ‘운명의 예측’과 관련된다면 거기에다가 원천강의 이름을 무조건 붙인 데서 생겨난 현상인 것이다.

3. ‘원천강’과 ‘구복여행’ 설화유형의 만남: 운명을 예측하는 여신의 탄생

구전신화 <원천강본풀이>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원래부터 독자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가, 아닌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그것은 순전히 ‘원천강’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천강본풀이>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거기에 원천강의 문화적 이미지가 덧입혀 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AT 460-461의 설화유형이 거론된다. 즉 <AT 460B. 구복여행>, <AT 460A. 보상을 받기 위해 신께 가는 여행>, <AT 461. 악마의 수염 세 개>이 그것이다 (Hans-Jörg Uther, 2004;269~272). 그런데 이 설화유형은 아르네에 의해 인도의 불전설화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소위 인도기원설이 그것이다—으로 이해되어 왔으며(Stith Thompson, 1946:210), 이에 대해 대다수의 학자들은, 약간의 사소한 논의를 제외하면 큰 맥락 속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원천강본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복여행> 민담유형의 인도 불전설화 기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본생경』(2권 3편, 사유품), 『현우경』(12권 46, 단니기품)이 지적되었는데, 그 불전설화 역시 인도의 민

간에서 구전되던 민담에 기반을 둔 것이기에, 불전설화에서 민담적 기반이 되는 내용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①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극복하기 노력하다가 실수하여 송사를 당한다. ②그러나 우연한 사고가 겹치는 바람에 송사자가 늘어나 곤경이 가중된다. ③송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로 부터 난문難問 해결을 부탁받는다. ④임금을 찾아가자 피고소자에 유리하게 송사를 잘 해결해 준다. ⑤임금이 부탁받은 난문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보화가 어디에 있는가도 알려 준다. ⑥귀로에 난문에 대한 해답을 다 알려 주고, 보화를 얻어 잘 산다(황인덕, 2006;246~252).

이렇게 정리된 내용 중에 <구복여행> 설화유형과 겹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가다가 난문 해결을 부탁받고, 돌아오는 길에 난문의 해답을 알려주어 복을 받고 잘 산다.’이다. 이로 볼 때, 불전설화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복여행> 설화유형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사의 근간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구복여행> 설화유형(AT 설화유형과 한국의 설화유형)을 여기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AT 460B. <구복여행 The Journey in Search of Fortune>: 두 형제가 그들의 농장에서 함께 살았는데, 동생만 열심히 일한다. 동생은 그가 맡은 부분을 혼자서도 경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장을 나누길 원한다. 동생은 형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얼마 후 동생은 게으른 형의 농장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한다. 동생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운명의 여신을 찾아 떠난다. 도중에 동생은 여러 대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운명의 여신께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겠다고 약속한다. 동생은 그가 불행한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이 없다는 얘기를 운명의 여신으로부터 듣는다. 동생은 그곳에서 운명의 여신이 날마다 적게 먹는 것을 본다. 여신의 하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날에 태어났는가를 여신께 묻자, 여신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의 먹을 운명은 그녀가 그날 먹었던 만큼 정도로 정해진다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동생은 질문 요청자들을 만나 여신으로부터 들은 해답을 말해 준다. 때때로 여행자는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복 있는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 후에 그는 그에게 질문 부탁을 한 어떤 사람에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여 행운을 잃는다(Hans-Jörg Uther, 2004;271).

한국. <구복여행>: 한 총각이 삼청동(혹은 서천서역국, 옥황상제, 저승할망)으로 복을 빌러 떠난다. 도중에 여인(노처녀, 과부), 노인(도령), 이무기를 차례로 만나 시집을 못 가는 이유, 배나무에 배가 안 열리는 이유(짐을 벗어 놓을 수 없는 이유), 용이 못 되는 이유 등을 물어봐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신은 각각의 질문에 ‘처음 만난 총각과 결혼하라(여의주를 가진 남편이어야 한다), 배나무 밑에 금은보화를 캐내라(맨 처음 만난 사람에게 벗어 주라), 여의주 하나(혹은 둘)를 총각에게 주라(뱃속에 보물방망이가 있어 그리하니 꺼내 주라).’는 해답을 알려 준다. 총각은 여인과 결혼하고, 금은보화를 얻고, 여의주를 얻어 잘 산다(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2006:51~52)

내용을 대충 살펴보다도, 불전설화에서 추출한 민담적 내용의 근간과 위에서 제시한 <구복여행> 설화유형의 근간이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원천강본풀이>는 세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구복여행> 설화유형의 근간에 ‘원천강’의 문화적 이미지가 덧입혀져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오느리 오느리나 밭일에 오느리나 점뜨디도 새디도 오느리 새리나 밭일 당상의 오느리 오쇼셔”(『금합자보』, 1572)라는 시조에 등장하는 ‘매일, 장상’은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또한 이 시조가 무가에 기원을 둔 것(김기형, 1998:3~12)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원천강본풀이>의 형성 시기를 16세기 초나 그 이전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여기에 <원천강본풀이>의 다른 이본인 ‘조술생본’이 <아기장수전설>의 내용을 차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추가하여 볼 때, 제주도 구전신화의 틀 속에 들어온 ‘원천강’은 철저하게 기존의 구전설화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원천강’이 어떻게 제주도의 구전신화에 자리 잡게 되는가의 과정을, 다른 근원의 구전설화에 기대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강본풀이>의 형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구전신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낮춰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서사 주인공이 시도하는 여행의 이유와 여행의 결과가 다르다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천강본풀이>는 제목과는 달리 ‘원천강’이 아닌 ‘오늘이’에 서사의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운명을 예측하는 여신이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왜 복이 없는가?’를 알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여정이 서사의 출발점이고, 그에 따른 서사의 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강본풀이>의 이해와 교육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3-1 초등국어 교과서 속의 <오늘이>: 서사적 완결성의 결여 및 심오한 주제의 불가해성

<원천강본풀이>는 한국 구전신화 연구의 역사에서 보자면, 그다지 주목을 받아 온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신화의 형성에는 ‘운명’을 미리 알고자 하는 한국만의 특유한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전승되는 <구복여행> 설화유형을 근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강본풀이>는 ‘원천강’이라고 하는 특유의 문화유전자가 개입됨으로 인하여 ‘운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의미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핵심적 의미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계의 모든 사물들—동물, 식물 등—과의 상호 교류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말한 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교류관계 속에 자신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말하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누구일까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원천강인 것이고, 거기에 오늘이는 몸소 다녀옴으로써 다른 사물들의 운명을 애기해 줄 수 있는 여신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초등학교 3-1 국어교과서에 실린 <오늘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원천강본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사람의 운명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자연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의 동물이나 식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은, 여타의 동물이나 식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의 관계를 성립시킨다는 것을 내포한다. 특정 동물의 생태 환경이 식물의 운명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의 특정 행위 또한 동식물의 생태적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의 운명은 상호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오한 주제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현장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물어보니, 고학년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다. 물론 학습활동에 주제를 물어보게 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 없으니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

겠다. 그러나 작품을 대상으로 수업활동이 이뤄질 때는 질문 문항과는 상관없이 읽기만 해도 무한한 정서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가 심오하면 그것마저 힘들게 된다. 연령대에 적합한 작품 선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둘째, 초등학교 3-1 국어교과서 속의 <오늘이>는 원천강에 가보지도 못한 지점에서 서사의 결말을 맞는다. 즉 미완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 작품은 온전히 제공될 때라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개의 구전설화는 작품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서 서사를 반 토막 내어 소개할 것이 못된다. 그럼에도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제시해야 한다면, 차라리 더 짙막한 작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구전설화는 특정 개인의 소산이 아니라 한 민족의 집단적 사고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어서, 어떤 작품보다도 교육적 가치가 높은 것인데, 반 토막을 낸 작품으로는 올바른 '전통문학'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볼 때, 초등학교 3-1 국어교과서 속의 <오늘이>는 작품의 주제 자체도 3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다, 그것도 반 토막을 내어 소개하였으니 잘못 선정된 작품, 잘못 소개하고 있는 작품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기형, 「<오노리> 유형의 기원과 전승 양상」,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8.
-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00.
-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진성기, 「신당과 당신」, 『제주도무속논고』, 제주민속연구소, 1993.
- 황인덕, 「한·중·일 '求福旅行' 설화의 비교적 고찰」, 『비교민속학』 제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한글개정판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 赤松智城·秋葉 隆 共編, 『朝鮮巫俗의 研究』(上),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 Thompson, Stith, *The Folktale*, The Dryden Press, 1946.
- Uther, Hans-Jörg, *The Types of International Folktales: A Classification and Bibliography Based on the System of Antti aarne and Stith Thompson*, FF Communications No.284,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2004.
-

내용정리 및 퀴즈

<내용정리>

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오늘이>의 원전은 구전신화 <원천강본풀이>이다.
2.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에 서사의 초점이 있는 신화이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여정이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고, 서사의 귀결 역시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천강본풀이>의 이해와 교육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초등학교 3-1 국어교과서에 실린 <오늘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원천강본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사람의 운명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자연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라는 점인데 이 점을 보여주지 못함. 둘째, 초등학교 3-1 국어교과서 속의 <오늘이>는 원천강에 가 보지도 못한 지점에서 끝남.

<퀴즈>

1. 초등학교 3-1 국어교과서 수록 <오늘이>의 원전 제목은 무엇인가?
<원천강본풀이>
2. 오늘이는 어디를 향해 여행을 떠났는가?
원천강